**Dave Mathewson 해석학 박사, 강의 1\_소개. 정의**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성경해석학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Gordon College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기반으로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해석학은 매우 오해되고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종종 여러 가지를 포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선 이번 강의에서 해석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학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그것은 해석과 주석, 여러분이 들어봤을 다른 용어와 같은 다른 용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다양한 해석 방법, 다양한 비평 방법, 그리고 그것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어떻게 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의 역사와 해석학의 역사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냥 앉아서 해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대해 씨름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다른 사람들의 긴 줄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본문을 해석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좌에서 여러분도 했으면 하는 것 중 하나는 특정 해석학 운동과 관련된 주요 인물의 이름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아이디어들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석학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일련의 강의를 들어야 합니까? 그냥 앉아서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듯이, 아마도 저는 사람들이 '아,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지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종류의 접근 방식조차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읽는 방법에 대한 많은 가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석학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먼저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미 말했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이해되는 용어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읽을수록,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누구를 읽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석학은 성경 본문에 올바른 방법이나 올바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성경 본문에 올바른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해석은 성경 본문에 대한 실제 연구 그 자체이며, 올바른 방법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문 자체에 대한 실제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오늘날 해석학이 사용되는 방식은 기술적으로 이 강의 시리즈가 일부 사람들이 해석학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우리가 해석학을 이해하는 방법과 이해하려고 할 때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해석학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뭔가의 의미.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다양한 접근 방식과 다양한 해석 방법을 고려하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유익할 수 있는지 고려하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학은 일반적으로 성경 연구에서 성경 본문의 건전한 원리와 기술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과학이든, 문학이든, 역사든, 다른 학문이든,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인간 학문 분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것, 혹은 의사소통의 다른 측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따라서 해석학은 우리가 보게 될 성경 연구를 훨씬 뛰어넘는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 밖에서도 해석학을 통해 수행되는 작업은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고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해석학은 단지 기술의 적절한 적용과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을 넘어 무엇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성경 본문, 즉 신약이나 구약의 본문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 강의 시리즈의 초점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이해하려고 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해석학(hermeneutics)이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헤르마스(Hermas) 신에 대해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번역하다, 이해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지닌 그리스어 hermeneuine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그리스 신 헤르마스(Hermas)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싶어하거나 누군가가 신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헤르마스에게 상담하러 갈 때, 헤르마스는 일종의 통역자 또는 중개자 역할을 하여 신이 보낸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해석했습니다. 정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행동을 했고, 헤르마스는 신의 메시지와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의미하려는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이해는 텍스트와 우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종류의 해석학은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나 해석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해석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다른 학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학과 해석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그것은 주석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주석과 같은 성경 언어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용어입니다. 그것들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석과 어떻게 다른가요? 주석은 일반적으로 원래 문맥과 원래 의미에서 텍스트의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건전한 원리와 기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더 이해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텍스트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텍스트에는 문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차원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신학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화적 차원, 언어적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석은 다양한 각도에서 본문을 조사하여 저자가 원래 의도한 대로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를 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학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원칙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텍스트를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해석은 또한 텍스트를 이해하는 실제 관행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학과 약간 다릅니다. 해석학은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법과 우리가 이해할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화로 더 많이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텍스트에 대한 실제 이해, 텍스트의 실제 해석 또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실제 적용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학과 해석 모두 우리가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제기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 올바른 방법과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석학과 해석에 대해 생각할 때 의사소통의 세 가지 다른 특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텍스트를 생산하는 작가가 있고, 텍스트 자체도 있고, 작가가 생산한 결과물이 소통하며, 텍스트를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독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은 저자, 텍스트, 독자에 대해 질문합니다. 특히 세 가지 중 하나 또는 세 가지 모두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저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저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석학에 대한 많은 접근 방식이 저자의 의도로 특징지어지는 접근 방식, 즉 저자의 의도로 알려진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뒤에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저자는 이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는가? 따라서 해석학의 한 가지 특징은 의미의 주요 위치로서 저자와 저자의 의사 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해석학에 관해 사람들이 종종 집중하는 해석학의 두 번째 특징 또는 두 번째 장소는 텍스트이거나 일부는 그것을 텍스트 내 초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저자의 의도, 저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텍스트 뒤에서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 해석학은 텍스트 자체, 완성된 제품, 즉 우리가 텍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실증적 증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미의 일차적 위치가 되는 기록된 텍스트의 형태.

그리고 해석. 따라서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르면 텍스트는 종종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에 관계없이 이제 텍스트에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텍스트는 우리 해석의 주요 대상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본문 자체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해석이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세 번째 장소는 독자일 것입니다.

즉,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독자 없이 그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한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저자에 접근할 수 없다면, 특히 오래 전에 사라진 성경 작가들에게 접근할 수 없다면, 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독자입니다. .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신학적 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차적인 의미 가 독자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특히 이 해석학 강의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 전반부 정도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방법이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세요.

저자에게 초점을 맞춘 해석 방법과 해석학 철학, 텍스트에 초점을 맞춘 다른 것, 그리고 최근에는 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해석학과 해석이 발전한 순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석학과 해석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탁월합니까? 아니면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유효합니까? 그럼 다시 해석의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해석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것이 성경 본문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 방법, 다양한 비평 방법,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 본문과 상호 작용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석학은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해석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앉아서 텍스트를 읽는 것 뿐이다. 그냥 앉아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러한 접근 방식은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과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해석학과 이해에 대한 가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왜 해석학이 필요한가? 해석학은 주로 기능하며, 제가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의미의 해석학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으로 이해하는 방식과 해석의 올바른 기술 및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

그런데 왜 해석학이 필요한가? 해석학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문화, 언어, 역사,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환경에서 특정 시점과 특정 시점에 생산된 텍스트 사이에 다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그것은 우리와는 아주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점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고대 텍스트의 관점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해에 필요한 공통점도 있다고 확신한다. 공통점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절망적일 만큼 큰 격차나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학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다르고 우리와는 매우 다른 환경, 문화, 상황에서 한 번에 생산된 일련의 문서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석학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석학은 성경 본문이 우리와 멀어지는 여러 가지 방식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2000년, 거의 2000년 이상에 걸쳐 생산된 텍스트를 다루는 성경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보다 이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리를 인식하고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몬타나에 살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여름방학 일을 하려고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는 한 목장주가 통나무집을 철거하는 것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통나무집은 1900년대 초반, 1920년대, 30년대 초반에 지어졌죠. 그리고 업데이트되었지만 일부 로그는 여전히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주인은 오두막을 조심스럽게 해체하고 대부분의 통나무를 모아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통나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상태가 양호하고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전화해서 이 오두막을 분해하고 이 통나무를 회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만났고 우리는 이 오두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나무를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통나무 사이에 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은 종종 몬타나의 추운 겨울 바람을 막기 위해 구멍을 채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문들을 보고 읽기 시작했고, 정치 만화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책들을 보기 시작했고 내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중 많은 부분은 단순히 내가 매우 다른 시대의 문학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 책을 읽은 지 불과 75년, 80년 전이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시기에 제작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완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2000년 전과 그 이전에 생산된 텍스트의 경우에는 얼마나 더 사실입니까? 따라서 해석학, 해석학 및 해석에 대한 연구는 특히 저자와 독자가 상담을 위해 여기에 없을 때 이러한 시간적 거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즉 해석자와 성경 본문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학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거리가 있고 이들 중 일부는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별개의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 약간의 중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자로서의 우리와 성경 본문 사이의 또 다른 거리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성경의 세계에서는 고대 근동 세계든 신약성서의 그리스-로마 세계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매우 다른 문화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세계가 자주 드러납니다.

때때로 나는 종종 제3세계 국가의 해석자와 독자들이 성경 본문을 읽는 데 더 쉬운 시간을 갖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때때로 성경 본문에 훨씬 더 가까운 문화와 북미의 개인주의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문화보다 성경 문화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자가 전달하려고 시도한 것처럼 성경 본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극복해야 할 문화적 가치와 차이점이 여전히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북미 지역에서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기술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향 이동성과 제가 2 주마다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때때로 저를 성경 본문을 생산한 문화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 중 일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다루어 실제로 다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본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방금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제가 해야 할 또 다른 면책 사항은 제가 직업과 관심 분야에서 신약학 교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예는 신약성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업할 다양한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구약성서의 예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은 신약의 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의 맥락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교훈은 주로 여자들과 그들이 예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제대로 가리면 예언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의 목적은 그 본문을 길게 다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본문에서 머리 덮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슬람 문화나 다른 표현이든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머리 덮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바울이 머리 덮개를 언급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언급하고 있는지는 그 본문에서 또 다른 논쟁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지시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바울의 배경과 문화적 정보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고린도전서 11장은 적어도 바울이 머리 덮개와 관련된 바울의 지시 사항을 알려주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 의사소통을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오해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한 예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당시의 로마제국을 흉측한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 하나 는 13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요한이 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을 묘사한 내용이 로마 제국을 해를 끼치려는 짐승으로 묘사한 만큼 암울하고 어두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답의 일부는 확실히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정치와 종교 문제를 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의 맥락에서 참여하고 속해 생활하며 심지어 생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상 숭배적인 종교 관습을 타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현대 의 정부와 종교는 적어도 많은 경우 분리되어 있지만, 1세기에 요한이 비판하려는 대부분의 내용은 1세기에 종교, 정치, 경제가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대한 요한의 비판의 일부는 확실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로마에 참여했다면 참여하게 될 우상 숭배적인 종교 관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야기의 영웅이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특히 사마리아인이 길들여지고 있는 현대 북미 환경에서 이 비유를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식품 저장실,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길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 몇 번 보게 되겠지만, 그들은 1세기의 사마리아인, 특히 1세기의 유대인을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여겨졌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니면 누가복음 15장과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나는 수년 동안, 수년 동안 그 비유를 읽었으며 아마도 이것 중 일부는 목장으로 둘러싸인 몬타나에서 자랐거나 몇 년을 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농장이나 어딘가 분독의 목장에 살고 있거나 사회와 분리된 이 아버지를 상상했습니다. 몬태나에서는 때로는 5마일을 운전해도 다른 집이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차도 끝까지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가 외딴 목장 어딘가에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형적인 중동 마을에 살고 있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기처럼 대해준 아들에게 달려가서 인사하고 안아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마을의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처럼 너무 빨리 우리 문화를 읽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우리는 비유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공동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려가서 아들에게 인사하고 그를 껴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룻기. 흥미롭게도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문 앞에 앉아 있던 남자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언급이 나옵니다. 내 말은, 그들이 게으른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여성들이 일하고 요리하고 온갖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 앞에 둘러앉아 게으른 남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마을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텍스트의 색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그냥 앉아서 바람을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

그들은 지휘하고 있고 아마도 사업을 지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의 개인주의 문화는 공동체에 더 잘 적응하는 문화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 관계, 즉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문화를 다루는 것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특정 성경 본문을 읽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개인으로서 당신이 속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성경 본문 사이에는 문화적 거리가 있어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거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앞의 두 가지와 관련이 있지만 성경 본문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사건을 기록하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성경 본문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 그곳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행사의 성격은 무엇이었나요? 저자가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내용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나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1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4장은 예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가신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오랜 적대 역사와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 특정 집단을 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본문을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사마리아인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방문하신다는 사실은 오히려 놀랍고,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충격일 것입니다.

서기 70년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을 둘러싼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러싼 상황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그리고 구약의 내러티브는 전쟁 이야기든,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든,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온갖 종류의 언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종종 성경 본문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사적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학은 우리가 그 간격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거리는 언어적 거리도 있다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은 적어도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제3언어인 아람어로 된 두어 본문의 일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우리의 언어, 즉 대부분의 언어와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해석학과 해석의 원리는 우리가 그 격차를 해소하고 그 거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를 들어, 구약과 신약에서 오늘날 사용되는 방식과 달리 나중에 번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다루겠습니다. 종종 영어에서 man을 번역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남자, 형제로 번역될 수 있는 매우 남성적인 용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의 그룹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 그것은 특히 영어와 다른 여러 언어에서 점점 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성서 본문은 우리가 일부 언어에서 사용했던 성별 유형의 언어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어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유사한 어근에서 유래한 단어이거나 다른 언어, 한 언어, 이전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의미는 거의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동등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언어로 된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학교 수업 중에도 바울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학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분명히 그는 영어 단어 희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영어 단어 희망과 함께 사용한 헬라어 단어 엘피스 를 번역합니다 . 그리고 그 학생은 바울이 기독교와 예수의 재림을 단지 희망으로만 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일부는 그가 영어 단어인 희망과 함께 바울이 사용한 단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언어 간에 단어가 거의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여 꽤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예를 들어 그리스어 시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로 시간적 방향을 나타내는 영어와 달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그리스어 동사 시제는 주로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수단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리스어 본문을 다룰 때 우리는 그리스어 시제나 심지어 히브리어 시제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동사 체계와 시제 체계를 다시 원래대로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어 또는 히브리어 방식. 이것은 구약성서가 기록된 언어와 우리가 현대의 나 자신을 위해 이해하려고 하는 21세기 영어 사이에 언어학적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차이, 즉 다섯 번째 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리적 차이입니다.

따라서 시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시대와는 매우 다른 시기에, 즉 적어도 약 2000만년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문화적 차이를 낳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문화와 매우 다른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를 증언합니다.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우리와 분리되는 사건을 가정합니다. 성경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언어학적 차이도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은 지리적 차이입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경 본문에서 다시 언급되거나 가정되는 흥미로운 지리적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학과 해석은 우리가 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흥미로운 내용은 요나가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어 앗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요나가 그냥 옆집 마을로 간 게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당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지리를 잘 알지 않는 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도록 부르신 이 사악하고 끔찍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 갈 극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예는 요한계시록과 첫 두 장의 편지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3장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요한이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의 말씀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현대 터키)에 전달했다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이 자신의 계시와 묵시록을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5-16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당신이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내가 읽도록 배운 방식은 내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뜨겁고 추운 것은 일종의 이분법적 반대라고 여겨졌습니다.

더운 것은 좋은 것이고 추운 것은 나쁜 것이었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제가 자라면서 사용했던 종교적 전문 용어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뜨겁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했고, 차갑다는 것은 꺼진다는 것, 그리스도에 대해 완전히 적대적이라는 것, 순종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것이 그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들의 증언이 활기차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차갑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죽었고 꺼져버렸으며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미지근하다. 이들은 내가 들은 대로 소심하고 울타리를 타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싶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중앙에 앉고 싶어합니다 .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네가 미지근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적어도 네가 나를 위해 불타서 나를 따르고 완전한 순종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아니면 적어도 당신이 나에게 반대 입장을 취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당신이 서있는 곳을 알고 중간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요한계시록 3장, 15장, 16장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은 그들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울타리만 타지 마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최소한 그렇게 하십시오. 울타리 라이더가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법은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 지역의 지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리스-로마 세계의 1세기 도시에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전형적인 1세기 그리스-로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물 공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라오디게아 근처의 두 도시가 그랬습니다. 그 도시 중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시는 실제로 약용 온천과 광천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때때로 치유와 약효를 얻기 위해 이 온천에 앉기 위해 멀리서 오기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골로새라고 알려진 또 다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역시 시원하고 시원한 물이 마시기 좋은 곳으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라오디게아가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물은 미지근했고 정말 기괴했습니다. 정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John이 그 지역의 지형을 그려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덥거나 추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즉 치료에 좋은 라오디게아 물처럼 뜨거웠으면 좋겠고, 골로새 물처럼 차가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자신의 물 공급원과 같습니다.

너는 미지근하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너를 네 입에서 토해 낼 것 같다. 제 말은, 미지근하고, 오래되고, 고인 물이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물 공급원과 같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지역의 지리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읽을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뜨겁다는 것과 좋다는 것은 모두 긍정적인 은유입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것들은 반대가 아닙니다. 뜨겁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차가워지는 것은 좋고 차갑고 상쾌한 골로새의 물과 같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중간 어딘가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일입니다. 그들 자신의 물 공급처럼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는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데도 좋지 않고, 술을 마셔도 좋지 않습니다. 뜨겁든 차갑든 영적인 뜨거운 온도보다 현대에 더 나은 비유는 여러분 중에 카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왜 웨이터가 계속해서 물, 즉 차가운 얼음물을 채워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왜 자꾸 커피잔을 채우는 걸까요? 미지근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당신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고, 음료가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대부분은 샤워할 때 미지근한 샤워가 아닌 뜨거운 샤워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비유가 John이 하고 있는 일에 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지시는 주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지역의 지리와 물 공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John은 둘 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독자들도 당시에 그러한 연관성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를 거절하라고 요구하신 곳, 그를 거절하거나 받아들이라고 명하신 곳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를 인식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리적인 배경이 이 글을 더욱 설득력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거리는 문학적 거리이다. 즉, 구약성경 본문은 여러 면에서 우리와는 매우 다른 문학적 환경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즉, 구약성서는 우리 시대의 문학적 유형 및 우리 시대의 문학 매체와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문학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는 서술과 이야기, 또한 서간 문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와 이야기를 쓰고, 편지를 읽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 쓰기, 서사 쓰기, 역사적 기록, 편지나 시 쓰기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반드시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의 문학 유형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문학 유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마지막으로 세상의 종말을 읽거나 쓴 게 언제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예언을 읽은 게 언제인가요? 어려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문자 메시지의 시작과 함께 완전히 다른 의사소통 매체와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학 장르를 생산하는 다른 전자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 저자들이 문서를 제작한 환경에서 썼던 다양한 문학적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사한 문학 유형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다시 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학적 격차가 있습니다. 해석과 해석학이 우리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학적 거리입니다.

따라서 해석학을 요약하자면, 해석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해석학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의도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해석, 해석학 해석 및 해석은 또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기술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는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일련의 문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문서가 시간적 거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리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생산된 문화적 차이, 즉 역사적 사건이든, 지리적 거리든, 언어적 차이든, 문학적 장르의 차이든, 다양한 문학적 유형이든, 성경 본문에 언급된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숨어 있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해석학과 해석은 우리가 성경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거리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제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할 일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성경에 관해 어떤 가정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학의 범위가 이해가 중요한 모든 인간 학문을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보아왔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안내하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주로 성경의 성격, 특히 영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성경 본문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